

<26학년도 중등임용미술 기출해설과 평소 최연식문풀 비교>

■ <A형>

A-1. 문풀 적중: 11월 모고 1장 B형 7번

답) ㉠유약(에나멜), ㉡유선 칠보

11월 모고 1장 B형 7. 칠보공예(七寶工藝)의 개념과 종류, 제작과정을 설명한 다음 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맞게 답을 하시오. [4점]

칠보(七寶)란 일반적으로 금, 은, 유리, 파리, 산호, 마노, 진주 등 일곱가지 보석 색깔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예에서의 개념은 다르다. 공예에서의 칠보란 (㉠)을/를 말한다. 이러한 칠보는 일반적인 문양을 라인으로 그리는 방식에서는 ㉢유선 칠보와 ㉣무선 칠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유선칠보**의 작업 공정은 ‘바탕 마무리, 식선, 유약 충전, 소성, 연마 및 광내기’의 순서로 이뤄진다. 먼저 ‘바탕 마무리’는 금속을 정하고 기본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바탕 금속에 따라 구리, 은, 금 및 에나멜 소착시 칠, 황동, 알루미늄도 칠보가 된다. 다음 ‘**식선** 과정은 (㉡)이다. 식선 다음은 ‘유약 충전’과정으로 에나멜을 채워 충전하는 과정이다. 이 공정에서는 에나멜을 대주격으로 떠서 금속 표면 위에 두께 0.5~1mm로 고르게 충전시킨 뒤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나면 ‘소성’에 들어가는데, 800도까지 가열하여 소성시킨다. 마지막으로 ‘연마 및 광내기’ 작업을 한다. 연마는 거친 버프(buff)로부터 고운 버프 순으로 해야 하며, 광을 낼 때에는 부드러운 가제 수건에 연마제를 조금씩 묻혀 광을 낸다.

<작성 방법>

- 괄호에 맞게 개념 ㉠을 서술할 것.
- 밑 줄 ㉢, ㉣의 각각의 개념 및 효과를 서술할 것.
- ‘식선’ 과정인 괄호 ㉡에 알맞은 내용을 서술할 것.

11월 최종모의고사에서 공예단원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점검하고자 낸 문제가 칠보공예였다. 11월이라는 시기 특성으로 인해 지엽적 내용보다는 가장 기본을 정리시키고자 한 의도가 기출로 그대로 나온 것이다. 정확하게 ‘유선칠보’라고 쓰면 되며, 괄호 ㉡의 답이 기출문제에 제시된 내용인 “금속선을 구획하고 그 안쪽에 에나멜 유약을 채워 소성한다”는 문장이었다. 항상 기본에 집중하자!


A-2. 교재 수록 내용 : ‘탱화’ 요목화, ‘선재동자’ 고려 불화 분석

답) ㉠탱화, ㉡선재 동자

A-3. 문풀 적중: 9월 모고 5장 A형 5번 / ‘네가티브 드로잉’ 교재 수록

답) ㉠스크럼블(스크라이블드), ㉡네가티브

9월 모고 5장 A형 5. 다음은 **자코메티의 ‘스크럼블 메스트로잉’**이다. 스크럼블 메스트로잉 개념을 서술하고, 드로잉 표현수업 중 이것을 적용해 ‘자화상’을 그리려고 할 때, 학생들 제작 시 중시할 점을 두 가지 서술하고, 학습효과를 한 가지 서술하시오. [4점] 【칼라도판 참조】



자화상/종이, 펜/자코메티

☞드로잉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기에 9월 모의고사에서 냈던 자코메티의 작품 도판과 함께 스크럼블 드로잉을 묻는 유형이 그대로 똑같이 출제된 문제이다. 키워드로 ‘스크럼블’ 혹은 ‘스크리블드’가 있어야 하며, 라인이든 매스든, 제스처든 간에 부수적인 단어는 키워드에 붙어 있으면 모두 정답처리된다

A-4. ☞‘하우전의 감상 단계’ 교재 수록

답) ㉠분류, ㉡개인

※ 판포크와 디어킹 : 전시환경 내 관객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에 대해 설명. 학습자가 관람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기때문에 학습 실생활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유기적, 통합적 경험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함.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통해 박물관에서 교육적 학습경험 형성한다는 것.

A-5. ☞문풀 적중: 5~6월 문풀1장 예시문5번 / 3,4월 2장 침삭문 1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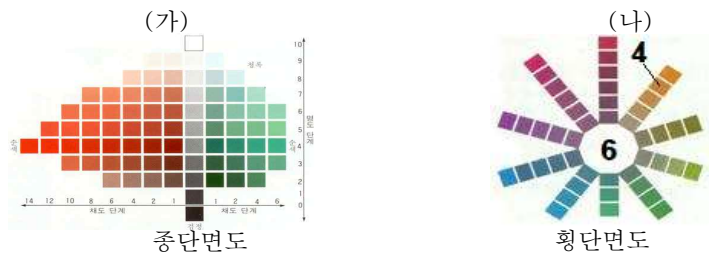
답) ㉠혼색계. ㉡모두 동일한 명도이다. ㉢보라. 5P는 모든 색상들 중 기준이 되는 주요 5색 상 중 보라색을 말하며, 3은 명도 단계를 말하며, 10은 채도 단계를 말한다.

5.6월 1장 예시문제 문5. 색을 나타내는 표색계는 다음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괄호 ㉠, ㉡의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답) ☞㉠혼색계, ㉡현색계

☞(㉠)은/는 **색광을 나타내는 표색계**로, 심리적, **물리적 빛의 혼색 실험에 기초를 둔 채색계**를 말한다. 이것은 빛의 반사 파장에 맞추어 색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현대 측색학 영역에서 중시되며, CIE 표준 표색계 (XYZ표색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은/는 **색채를 나타내는 표색계**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체 색을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물체색을 지각하고 표시하는 데에 색의 3속성에 따라 번호나 기호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색표에 의해 물체색의 표준을 정해 여러 가지 물체의 색들과 비교할 수 있게 번호나 기호 붙여 표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먼셀의 표색계**와 **오스트발트의 표색계**가 대표적이다.

☞매년 한문제씩 출제되는 색채에서 아직 출제 안된 용어가 혼색/현색계이므로 기본 용어 확인차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풀때도 여러번 강조한 것처럼 “A와 B” 등의 2가지 요목화는 그것이 어떤 단원이든 간에 이젠 필수로 정리해야 한다. 역시 요목화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문제였다.

3.4월 2장 침삭문제 11. 다음은 먼셀 색상환 단면도이다. 색상환에 대해 <작성방법>에 맞게 답을 하시오. [4점]



<작성 방법>

- 먼셀 색상환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활용되는 것으로 20색상환이 일반적이다. 20색상이 만들어진 ㉠구성 원리를 ☞**기본 5색상 명칭을 거론하며** 서술할 것.
- (나)의 황단면도 ㉡장절을 (가)의 중단면도와 비교해 **두 가지** 서술할 것
- (나)의 단면도 중 제시된 숫자 4가 표기된 곳의 ㉢☞**색 표기명칭**을 ‘색채표시법’에 따라 적을 것(단, 이 색은 노랑으로 노랑은 5Y임)

☞역시 색의 가장 기본내용으로, 먼셀 색상환 단면도를 완전히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기본 5색상 중 이번의 답은 보라였고, 황단면도의 수평단면에서의 명도 특성, 제시된 기호의 색표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3월 기초 문제풀이에서 다뤘듯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단순암기만 말고 이해를 하자!

A-6. 문풀 적중: 9월 모고 5강 B형 8번 / 9월 모고 1강 A형 3번.

답) ㉠센서라마(Sensorama). ㉡프로젝션 맵핑(3D맵핑). ㉢투사될 대상의 크기와 형태, 굴곡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 측정값을 토대로 3D모델링 데이터를 제작해야 한다. ㉣가상현실이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가상의 공간에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것에 비해 증강현실은 현실의 환경을 기반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덧입혀 보여주는 영상 기술이다.

※ 1950년대 - 모든 하일리그의 센서라마(Sensorama/1962년 특허 획득)
 : 1950년대 중반, 촬영감독 하일리그는 시각과 청각뿐 아닌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아케이드 스타일의 극장 캐비닛 센서라마를 개발함(스테레오 스피커, 선풍기, 입체 3D디스플레이, 냄새발생기, 진동의자 등 갖춤). 센서라마는 개인이 영화에 완전 몰입할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또한 이 발명품을 위해 단편영화 6편을 제작, 모두 직접 촬영, 제작, 편집함. 이후 다음 발명품으로 1960년대 최초의 VR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발명함. 즉, 텔레스피어 마스크(1960년 특허)로, 모션트래킹이 없는 비대화형 필름매체이긴 하나,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의 첫 사례였음. 이 헤드셋은 스테레오사운드와 함께 입체적 3D와 넓은 시야를 제공함.

9월 모고 5강 B형 8. 다음 현대미술작품과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작성방법>에 따라 답 하시오. [4점]



디스트릭트의 'Eternal Nature'/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지털 미디어 그룹 디스트릭트(d'strict)의 'Eternal Nature'가 DDP에 외벽에 상영되어 거대한 자연이 지닌 강인함과 섬세함, 웅장함이 거대한 파도, 개화하는 꽃, 정글 등의 모습으로 10분간 보여주고 있다. 비정형 곡선의 거대한 질량감을 보여주는 DDP 전면부 전체가 영상으로 가득 차 시야를 압도한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은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맵핑 전시로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에 등재됐다.

<작성 방법>

- **미질 줄 ㉠의 개념과 건축 구조에 따른 효과**를 서술할 것.
- 이러한 3D 맵핑기술은 미디어아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활용되는 분야를 ㉡두가지 이상 쓸 것.
- 일반 2차원 테크놀로지에 비해 이런 3D맵핑아트에서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특징을 서술할 것.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도 한 프로젝트맵핑은 올해 중반기에 DDP에서 대규모 전시가 있었던 이슈 전시로, 9월 모의고사에서도 3D맵핑으로 출제된 내용이다. 아울러 당시 모의고사의 답이었던 건물의 입체적 구조에 따라 영상을 투사할 때 효과와 특성을 이번 기출의 필수적인 작업에 대한 답으로 가필하여 작성하면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비교하는 내용 역시 9월 모의고사에서 다음 자료처럼 명확하게 이들의 특성을 학습하는 문제를 다뤘었기 때문에 명확한 키워드만 놓치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다.

9월 모고 1강 A형 3. 다음은 미술 교사가 다음 주에 학생들에게 ‘메타버스와 미술’을 수업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한 자료의 메모 중 일부이다. 괄호 속에 용어㉠, ㉡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칼라도관 참조】



25년 8월 00일 메모 “메타버스 기술에 무엇이 있는가?”

메타버스 기술과 연관된 기술들

1. 거울 세계 :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구현한 것으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도 불린다.
2. 라이프로그킹(lifeloggng) : 웹 사이트에 개인의 일상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관한다.
3. 가상 현실(VR) : 컴퓨터 그래픽스,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해 인간 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며,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은 어렵지만 컨트롤러를 통해 가상 세계 속 사물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증강 현실(AR) : 실제 세계에 가상 요소를 덧입힌 것으로,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이 자유롭지만 가상 요소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없다.**

☞**혼합 현실(MR) :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이 가능하며 가상 세계의 사물과 상호작용도 가능하고,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이 혼재하는 시점을 구현한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

5. (㉠) : VR, AR, MR기술을 활용한 초실감형 기술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경험과 몰입감, 확장된 현실을 구현한다.

4번의 증강 현실(AR) 콘텐츠의 구조 이해하기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AR 기술은 단말기의 카메라로 보이는 이미지 위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해 보여주는데, 이것을 (㉡)기술이라고 한다. 다음처럼 스마트폰 카메라로 (㉠)할 이미지를 비추면 증강현실 객체가 나타난다



(㉠)할 이미지

증강 현실 객체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에서

A-7. ☞**문풀 적중: 5,6월1강 침삭문5번/ 7,8월 기출문풀3강10번/ 9월모고3강 B형 10번**
 답) (나)사회적 규범을 강조한 교훈적이고 교화적인 그림이 아니라 장수를 기원한 구복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이다.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이 종이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염법. ㉢세화

5.6월 1강 침삭문제 5. 동양화의 산수화 그리기 중 두 학생의 표현활동 내용을 보고, 각 학생의 제작 방법을 재료를 거론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서술하시오 [4점]

— <보 기> —

산수화 표현 수업 중 하늘의 안개를 ☞**선염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희수와 혜영이는 각각 수묵화와 채색화의 방법으로 그리려고 스케치를 한 후 제작을 하였다. ...(중략)...희수는 수묵화 기법으로 그렸고, 혜영이는 채색화 기법으로 안개를 효과적으로 완성하였다.

☞**채색화에서의 선염과 수묵에서 선염은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라면서 문제로도 여러번 강조하며 5월 침삭문제에서 냈던 문제다. 단어가 한 글자만 같아도 헛갈려 하는데, 하물며 같은 용어일 때 대부분 쉽게 개념을 착각할 수 있으니 이런 용어일수록 더욱 정확히 비교 암기를 해두어야한다.**

A-8. 답) ㉠설계와 창작. ㉡매체의 종류 ㉢개인적. ㉣자신이 문제가 되어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유추한다.

(1) 설계와 창작	
범주 \ 구분	내용 요소
[지식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연결된 주제 •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 • 표현 기법과 매체의 종류
[과정 · 기능]	(생략)
[가치 · 태도]	(생략)

A-9. 문풀 적중: 9월 모고 7장 A형 10번

답) ㉠첫째, 다양한 판화기법의 특징과 조건, 제작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둘째, 다양한 판화기법의 제작 방법과 용구 및 재료 사용법 등을 시범 보인다. ㉡연습 활동. ㉢자원

9월 모고 7장 A형 10. 다음은 동양화 표현수업 중 ‘친구 얼굴 공필화로 그리기’를 체계로 하여 **직접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활동이다.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음 과정에 맞게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하시오. **[4점]**

단계	학생의 활동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필 붓과 화선지, 아교액, 채색물감 등 공필진채화에 사용될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동기유발을 한다. •친구 얼굴 공필화로 그리기에 대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인식한다.
(㉠)	㉡ <- 두가지 활동 쓰기(시범/ 설명)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상화 참고자료나 작품을 보며 붓사용 효과와 물감 양에 따른 효과와 차이, 표현 특성 및 방법 등에 대해 질문을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교액 칠한 화선지에 세필법 사용에 따른 다양한 선이나 색상별로 구름법 등 채색 연습을 한다.
독립적인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붓과 채색물감 등 사용법과 효과를 생각하며 공필진채화 제작과정에 따라 창의적으로 친구얼굴을 그린다.
정리 및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작품과 친구 작품을 비교하며 선 효과와 재료와 용구 효과, 완성도 등 느낀 소감을 말한다. •연습이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별적 연습을 한다.

☞ 평소 문제에 냈던 직접교수법의 시범/설명 단계 두 가지와 연습활동이 그대로 나왔다. 당시에도 시범과 설명을 명확히 나눠 주제에 맞게 써야함을 침삭으로 지적하였던 100%적중문제이다.

㉢의 출처) <미술과 교재연구 및 교수법> 교육과학사. P136

(4) 상호작용을 통한 미술 학습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지식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화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학습은 전문가인 교사나 수준 높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들은 사회적 중재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전이시키는 것으로 본다. 구성주의를 극단적 상대주의와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다. 이는 아동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함으로써 사회적 인지 갈등을 통해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적 학습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필요로 한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자신의 학습이 학습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에게 이익이 되고, 동료의 학습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함께 성공하려고 서로 격려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은 협동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학생들이 '나 대신 우리(We instead of me)'라고 생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Johnson, D.W., Johnson, R.T., & Holubeck, 1987).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목표의 상호의존성 - 각자의 목표나 그룹의 목표를 공유한다.
 둘째, 과제, 목표의 상호의존성 - 각자 작업을 분담한다.
 셋째, 자원의 상호의존성 - 집단 구성원 간의 학습 자료나 자원, 정보를 분배하고 공유한다.
 넷째, 역할의 상호의존성 -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보상의 상호의존성 -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그룹으로 보상을 한다.

9월 모고 1강 B형 8. 다음은 동양의 산수 공간표현인 ‘삼원법’에 대한 설명표다. 이 이론이 실린 화론서를 쓰고, 다음 대조표에 알맞게 ㉠, ㉡, ㉢에 적합한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4점】

	시점	효과와 표현
고원	㉠	높이 표현에 적당하고, 색은 청명하고 맑고 밝은 느낌이 나게 해야 하며, 형태는 우뚝 솟아야 한다.
심원	앞 산봉우리에서 뒤산을 넘겨 볼 때 시점	㉡
평원	가까운 산에서 멀리있는 산 봤을 때 시점	㉢

❏ **곽희와 종병의 원근 특징은 비교문제로 접근해야한다.** 각 1점씩이므로 명확히 두 관점을 써야하며, 다시점인 곽희의 삼원의 입체적, 웅장한 원근과 대비하여 종병의 초보적 원근인 선형적인 크기 대소를 비교하면 된다. 평소 문제풀이때 여러번 다뤘던 곽희의 삼원은 무난히 썼을 것이므로, 다시점이 아닌 1차원적인 거리의 크기 차이로 종병을 접근해서 상대적 관점으로 유추하여 쓰면 되며, 종병의 초보적 원근법은 교재 내용으로 ‘원영’이라는 기초 한자뜻(멀리 비춤)으로 볼때도 거리를 뜻함을 알 수 있다.

※ ❏ **교재 <미술교과교육 미학론> 373P :** 종병의 <화산수서> 중 ‘원영’론 : 크기에 따른 거리감의 법칙을 밝히며 초보적인 투시화법을 제시. "거대한 곤륜산과 아주 작은 눈동자와의 관례를 생각해 볼 때, 눈 앞 한치의 거리에서는 곤륜산을 볼 수 없으나 멀리 몇 리 떨어져 보면 눈 안에 모두 담을 수 있다. 대상에서 거리를 점점 멀리하면 그 대상은 더욱 작아진다."

5.6월 8강 예시문제 2. <보기>는 **종병**(宗炳, 375-443)의 산수화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에 알맞은 화론을 적고, 괄호 ㉡에 알맞은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적으시오.

<보 기>

산수화를 감상자와 심오한 철학 혹은 우주론적 원리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본 동양사상가 종병은 (㉠) 를/을 주장하면서 **산수화를 봄으로써 유쾌해지며,性情(性情)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는 ‘정신이 맑고 명랑해짐’이라는 의미로서,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순수 자연의 **❏와유적 표현**과 감상법에 연관된다.

종병은 이를 바탕으로 산수화론에서 **❏명산명천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는데, ‘산 속에 도(道)가 있으니 산에 살고 산수화 속에 신(神)이 있어야 한다.** 즉, 취흥과 감신(感神)은 장자의 무(無)와 같다’고 주장하며 명산을 두루 유람하고 자연경물의 법칙을 탐구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모든 자연경물을 마음의 눈에 기록하다’라는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산수화 표현에서는 ‘기억해 두었다가 그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여 몸소 배회한 곳, 눈으로 똑똑히 본 산수의 모습은 천 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추측하여 도형으로 그리고 채색으로 그 색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술하였는데, 비로소 명산에 대한 여행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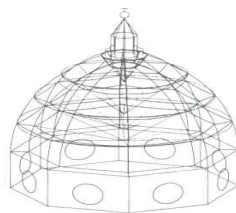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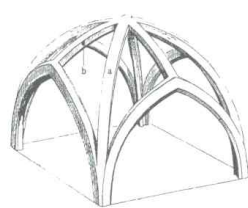
❏ **종병의 와유론은 기본 핵심내용으로 동양미학론 및 문필 때도 여러번 출제하며 다각도로 훈련했었다.** 실전에서는 평소 문필보다 더 쉽게 ‘와유론’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 와류 산수론이 가장 적합한 용어라 포괄적으로 감상 개념의 용어를 물었으므로 ‘와유론’이라 써도 허용 답이 될 것이다.

A-11. ❏문필 적중 : 3,4월 3강 서미사 서술예시문제 7번

답) ㉠플라잉 버트레스. 기둥의 역할을 하던 벽의 하중을 외부로 분산시켜 건물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중 셸(이중 돔/ 이중 레이어). ㉢리브(혹은 늑골/ 리브골조/리브궁륭 등 구조 전체 명칭도 가능)

3.4월 3강 서미사 서술예시문제 7. 르네상스 건축에 대한 다음 도면과 설명을 참고하여 괄호 ㉠, ㉡에 알맞은 용어를 각각 쓰시오. 답) ㉠이중 돔, ㉡헤링본

르네상스 건축은 재료 및 구조나 양식에 있어 기존 건축을 계승하면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우선 재료에서는 주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벽돌과 콘크리트를 주재료와 함께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다. 양식에서는 로마를 이어 받아 돔을 건설하였는데, 특히 **돔은 시공성과 경량화, 외관의 미를 위해서 골조 구조를 내외로 마감하는 '이중 구조'로 시공을 하였다. 그리고 건축의 전체 구조에 있어서는 실제 골격은 '조적식 구조'이면서도 외부 면에는 (㉠) 구조'로 구축을 하였다.** 아울러 건축 양식에 있어서는 복고주의를 바탕으로 고전주의의 질서와 형식미를 기본 요소로 채택했으며, 주범 양식과 함께 엔타블처, 박공, 아치 등 고전적 건축요소들을 도입하여 장식적인 요소로 시공을 하였다. 평면 구조에 있어서 평면은 고딕양식의 장축형을 선호하였고, 돔의 안쪽에 벽돌을 쌓아올릴 때는 강도를 강화하고자 (㉡) 스타일로 엇갈리게 쌓아 올려서 역학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갖게 하였다. 이것은 '청어 뼈'라는 의미로 이를 닮은 패턴을 의미한다.



㉠고딕성당의 천장구조 르네상스 돔의 골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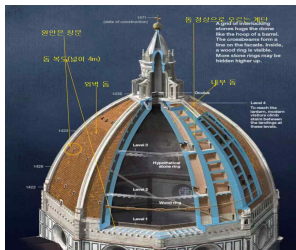
(㉡) 패턴 벽돌

올해 서양건축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중세~근세가 유력해 문제풀이때 관련 문제를 비교형, 표유형 등 다각도로 냈었다. 특히 피렌체성당의 출제가 강하게 예측돼 이론 수업 때 돔구조 자료를 별도로 나눠주고 설명도 했었으며, 당시 자료에서 고딕영향 받은 리브구조 및 이중돔의 자료를 상세히 도판으로 설명한 게 그대로 나왔다, 3월 기본문풀때 이미 '이중돔'을 기입으로 묻는 괄호형을 냈었으며, 고딕건축과의 비교관점도 있어 무난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론수업 중 서양미술사 르네상스때 추가로 배부한 <피렌체 성당 구조> 자료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 1)르네상스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기념비적 건축물 : 피렌체시의 번영 과시 위해 13c에 계획, ...(생략)...
- 2)돔 : 브루넬레스키가 판테온 돔에서 원리 참조해 제작
→지붕은 15c 브루넬레스키 설계안에 따라 **2중 레이어**(내/외부 지붕들 사이 빈공간)로 전체 무게를 크게 감소시키므로써 팔각 대형지붕 올리는 데 성공, '성요한 세례당'구조(얇은 지붕을 수평 이음벽으로 연결)를 빌려 해결함. 외부에서는 건축 골격이 감추어져 마치 기초 골격 위에 천막을 씌운 형태임.
- 3)평면 구조 : 평면은 고딕양식의 장축형(13c말 처음 지으려는 모양은 고딕이었으나, 시대 변화로 유행이 바뀌어 더이상 고딕양식 선호하지 않음)
- 4)벽돌 구조 : 벽돌을 쌓아올릴 때 강도 강화하려고 헤링본 스타일로 엇갈리게 쌓아올려 역학적으로 안정된 형태 갖게 함. 돔의 안쪽에 헤링본 스타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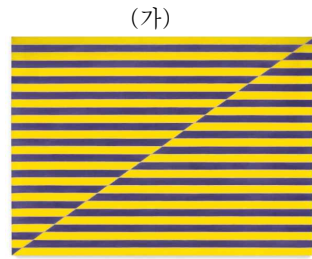


- **이중 지붕 설계** : 지붕을 안 지붕과 바깥 지붕으로 분리. 두 지붕 사이에 건축작업 및 향후 수리 등 작업용인 463개 계단 제작.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는 통로 역할도 겸함.
- **리브 구조와 벽돌 결합** : **8각형 꼭지마다 리브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수평 리브 16개를 제작해 구조를 지탱하게 한 뒤 여기에 벽돌을 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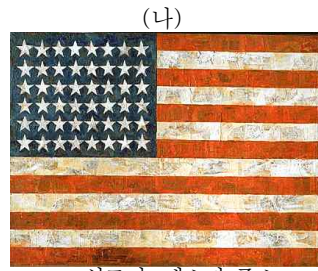
A-12. 문풀 적중: 9월 모고 8강 B형 3번

답) ㉠인물형. ㉠톤도. ㉡애나멜 페인트(가정용 페인트/알루미늄 페인트). 사각 캔버스를 일부 도려내고 그 외곽을 따라 제도기와 마스킹테이프 등 기계적 도구로 정밀하고 매끈한 스트라이프를 기계적으로 반복해 제작했다(알루미늄 페인트와 금속성 안료를 기계적 제도용구만 사용해 붓터치 자국없이 정밀한 칠로 날카롭게 분리된 얇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반복 채색했다)

9월 모고 8강 B형 3. 다음 두 현대 회화는 이전의 회화와 다른 표현 방식과 제작 의도를 드러낸다. <작성 방법>에 알맞게 답을 하시오. [4점] 【칼라도판 참조】



텔라웨어 교차로, 프랭크 스텔라



성조기, 제스퍼 존스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스트라이프를 사용해 표현을 했지만 그 특징은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각 작가의 ㉠미술사조 이념에 따른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따라 (가)와 (나)에서 사용된 각각의 ㉡재료 및 기법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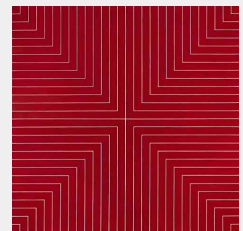
- 밑 줄 ㉠에 따라 (가), (나)의 각 미술사조와 그 이념 및 제작 의도를 각각 서술할 것.
- 밑 줄 ㉡의 내용을 서술할 것.

스텔라의 60년대 스트라이프 회화는 채색법과 작가 관점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아 9월 모고에서 존스의 상반된 작품과 비교로 냈던 문제다. 특히 붓자국 없는 기계적인 채색법과 애나멜 페인트의 활용은 서술이나 기입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무난히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작가 사후라는 이슈와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기출이 예측되었었다.

• 9월 모고 8강 B형 3번 답지에 수록된 암기 자료

※스텔라의 미니멀 회화 / 줄무늬 연작 ‘텔라웨어 교차로’

: ‘텔라웨어 교차로’는 스텔라가 그린 6점의 미니멀리스트 연작으로, 작업에 즐겨쓴 가정용 페인트로 그렸다. 개개 작품들은 규칙적 패턴 선으로 구성했고, 정사각 캔버스에 그린 선들은 다시 가는 줄로 세분된다. 그는 각기 다른 6개의 색과 6개의 패턴을 이용, 총 36점의 작은 버전들로 제작함으로써, 색과 형태의 수학적 조합에 대한 취향을 표명했다. 이 작품들은 당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재현을 배제하고, 낭만주의적 개인 이상과 감수성도 차단했다.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확히 채색된 표면 딱 그것과 마주하게 된다. 그는 "당신이 보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며 "나의 목표는 동일한 비율의 규칙적인 패턴을 이용해 그림에서 환영적 공간을 몰아내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일련의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획득한 '체계적' 회화라는 대답으로 스스로를 변호했다.



텔라웨어 교차로, 1962

■ B형

1. 참고 문제 : 5~6월 2강 예시문 20번

답) ㉠법첩(탁본첩), ㉡초서

※ 왕희지의 <필진도>(筆陣圖)
 : 왕희지가 글씨 쓰는 법에 대해 설명한 글로, 그의 스승 위부인(偉夫人)이 지은 <필진도병서(筆陣圖並書)>에 대해 왕희지가 다시 <제필진도후(題筆陣圖後)>를 쓴 것.
 (한자 원문 생략)

“~만약 초서를 배우려면 또한 다른 법이 있다. 모름지기 **앞은 천천히 하고 뒤는 급하게 하며 글자체의 형세는 형상이 마치 용과 뱀처럼 서로 같고리로 연결하여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모름지기 모서리·치우침·일어남·엎어짐의 용필 또한 **가지런하고 평평하며 크고 작음이 하나같이 같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매번 한 글자를 씌에 점이 있는 곳 또한 나머지 글자의 모든 경지를 만든 후에 점을 안치해야하는데, 그 점은 공중에서 흔들어 내치는 필치로 만들어야한다. 그 초서 또한 다시 전서의 형세, 팔분, 고례가 서로 섞이도록 해야하고, 또한 급하지 않고 먹이 종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 급하게 쓰면, 뜻과 생각이 천박해지고 붓은 곧 곧게 지나간다. 오직 장초와 장정서, 그리고 행압서 등은 이러한 형세를 운용하지 않지만 단지 ‘격석파(擊石波)’를 운용할 따름이다. ‘격석파’라는 것은 ‘缺波(결파)’이다. 또한 팔분은 다시 하나의 파가 있으니, 이를 ‘준미파(隼尾波)’라고 일컫는다. 즉 중요한 <태산명(泰山銘)> 및 <위문제수선비(魏文帝受禪碑)> 중에 이미 이러한 서체가 있다”

->왕희지가 <필진도>에서 가장 자유로운 초서를 쓸 때 규칙이 없다고 급하게 쓰고, 붓이 곧게 지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문장. 이미 초서 이전 서체(진서나 해서)에서는 획의 굵고 꺾는 용필을 잘 알고있으나, 초서만은 획 특질이 거칠고 분방해 획이 쉽게 끝나지는 문제가 생기기애 그 경계에 있는 초서 용필을 주의해야함을 피력함.

5.6월 2강 예시문제 20. 다음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문서에 사용된 초서체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향 관계를 서술하고, 광초풍 초서체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중국의 초서				조선의 초서			
	왕희지의 고법 계승 초서체		광초풍의 초서체		왕희지의 고법 계승 초서체		광초풍의 초서체	
	지염	조명부	회소	장필	박평년	한호	엄한중	김인후
東								
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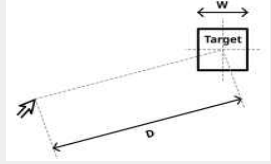
5월 문제풀이 때 심화내용으로 왕희지의 초서체가 중국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성행했다는 것을 출제하며, 우리나라의 광초풍 초서체의 특징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 이 문제는 적중은 아니나 서예학의 역사에 관한 문제로서, 문제 의도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단답형 문제이다. 제시된 문장내에서 출제자의 화법이 어느 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파악한다면 초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문제 지문에 힌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2. 답) ㉠테네브리즘(Tenebrism/암흑 양식). ㉡베네치아파

※테네브리즘(Tenebrism) : 이탈리아어로 ‘어두운’ 혹은 ‘미스터리한’의 뜻인 테네브로소(Tenebroso)에서 유래.

3. 답) ㉠인터랙션(Interaction). ㉡선택(선택지). ㉢첫째, 목표 대상까지의 거리를 줄인다. 둘째, 목표 대상의 크기를 더 크게 한다.

※ 피츠의 법칙(Fitts' Law) (☞폴 피츠가 1954년 발표한 이론)
 -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과 인간공학에서 인간 행동에 대해 속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 시작점에서 목표까지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느냐를 예측하려 함. 이는 목표의 크기와 목표까지 거리에 따라 결정됨(활용 사례: 웹페이지에서 링크 걸린 버튼이 너무 작아 클릭이 어려운 이유 설명할 때 등)
 - 공식 : $T=a+b\log_2(2D/W)$ (매켄지의 샷 공식)
 T: 동작 완수에 필요한 평균 시간.
 a, b : 실험 상수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직선을 측정해 얻어진 실험치로 결정.
 D : 대상의 중심으로부터 측정된 거리.
 W : 움직이는 방향을 축으로 했을 때 측정되는 목표물의 폭.
 (또 최종 목표지에 다다를 때 허용되는 오차치임).
 ->이 공식에서 목표에 닿기 위해 목표물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와 정확도가 나빠지고, 목표물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필요 시간이 더 길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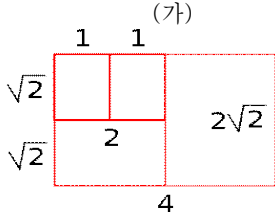


4. ☞문풀 적중 : 5,6월 1강 침삭문제 1번 / 5,6월 3강 예시문제 1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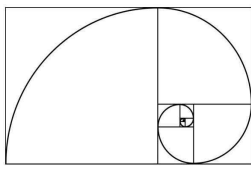
답) (가)클랙식(고전). ㉠인체 표현 시 무게를 한쪽 발에 집중하고 다른 쪽 발은 편안히 힘을 빼서 전신이 s자의 안정감 있는 대비적 균형 자세로, 이 자세로 인해 격렬한 움직임도 자유로이 표현 가능하게 되었다. ㉡카논. ㉢사각형의 한 변을 둘로 나눴을 때, 전체와 긴 부분인 b와의 비율이, 긴 부분b와 짧은 부분a의 비율과 같게 나누는 원리로, a와 b는 $a+b:b=a:b$ 의 규칙이 성립돼 a가 1일 때 b는 1.618이 된다(혹은 한 선으로 사각형을 이등분 해 한쪽 평방을 다른 쪽 전체 면적과 같도록 하고자 a가 1일 때 b를 1.618이 되게 하였다)

5,6월 1강 침삭문제 1번. 다음은 조형원리 중 비례에 대한 도판과 설명이다. 제시된 도판 (가), (나)의 설명 중 괄호 ㉠을 쓰고, 밑줄 ㉡을 쓰시오. [2점]

(가)



☞(나)



(가) 금강비례는 ... (생략)... 제시된 도판처럼 사각의 한 변을 1로 할 때, 긴 변의 길이가 루트 2, 3, 4 등의 무리수로 되는 비례이기 때문에 (㉠)와도 유사하다.
 (나) ㉡의 비례는 ☞한 선으로 이등분하여 한쪽의 평방을 다른 쪽 전체의 면적과 같도록 하는 분할비이며, 그리스 때 발견되어 이후 서구 미술사에서 가장 조화적이며 아름다운 비례로 여겨왔다. 르 르코르뷔지에가 이것을 피보나치(Fibonacci) 수열 원리에 착안해 인체 비례와 결부시켜 '모듈(황금기준척)'을 고안하기도 했다. 이 비의 값은 $\frac{1}{2}(\sqrt{5}+1)$ 로, 거의 **1.618:1** 또는 1:0.618이 되며, 앵무조개 단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오랫동안 출제되지않던 조형원리가 제작년부터 출제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조형요소 및 원리에 대한 강조를 이론과 문제풀이때 다수의 문제들로 훈련을 해왔었다. 특히 그 중 비례는 기입형 및 서술형으로 풀기에 적합해 각종 비례 종류 요목화 및 특징들을 정리해주었었다. 3월과 5월 문제풀이때 황금비례를 앵무조개 단면으로 제시하며 위와 같이 그 1:1.618이 나오는 원리를 지문에서도 넣었으므로 문제와 답만 외우지 말고 지문도 충실히 복습하라고 강조한 것을 지킨 수강생이라면 무난히 원리까지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숫자 비율만 쓰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를 다 써야 한다.

5.6월 3강 예시문제 17번.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는 다음 조각의 자세를 적으시오.

<보 기>



- 이 자세의 명칭 어원은 이탈리아어로 '정반대의 것'이라는 뜻으로, **인체를 표현할 때 무게를 한쪽 발에 집중하고 다른쪽 발은 편안하게 힘을 빼는 자세**를 의미한다.
- 조각에서 이 자세는 '**대칭적 조화**'를 의미하고, 일명 '카운터포이즈(counterpoise)' 혹은 '대응 균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서양 조각의 역사에서 이 자세의 발견으로 아무리 **격렬한 움직임이라도 이제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콘트라포스토** 자세는 이미 기출된 문제로, 아주 기초적 내용이지만, 특징 서술시 필수 키워드 유무가 점수 획득의 기준이 될 것이다. 5월 문풀 때 제시된 내용처럼 한발 힘빼서 편안함과 대칭 혹은 대비적 조화가 드러난다는 키워드는 꼭 있어야겠다. 아울러 이 조각의 양식을 묻는 문제에서 빙켈만식 4가지 구분을 적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요구를 있는대로 받아들이는 취지 파악이 필요하다.

5. 답) ㉠플라그래피(플라주 판화). ㉡이 틀렸으며, 판면에 유성 도료로 코팅을 하면 판면에 잉크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엠보싱(돋음내기). 사물들의 표면 질감 효과가 극대화된다.

6. 문풀 적중 : 7,8월 기출문풀 4강 1번 + 11번

답) ㉢, ㉠, ㉡. ㉠첫째, 메사추세츠 사범미술학교를 창설하여 사범학교에서 드로잉 교수법을 강의하고 지도하며 미술교사를 양성하였다. 둘째, 드로잉 교사 양성을 위해 교사들의 연수제도와 전문적인 미술교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드로잉이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어 드로잉 교육으로 아동에게 즐거움과 생산적인 이익을 주고,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등 윤리적이며 근면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7.8월 기출문풀 4강 11. 다음은 **윌터 스미스(W. Smith)의 드로잉 교육**에 관한 자료와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맞게 답을 하시오[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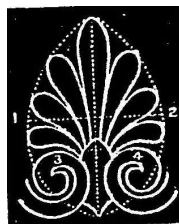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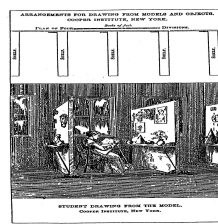


그림 2

스미스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문법학교 내내 계속되고 고등학교에서 끝나게 되는 학년별로 나뉜 교육계획안을 개발했다. **1872년** 그는 초등 학년의 드로잉 세 단계를 제시하며 '() 화법 드로잉', '모델 드로잉', 그리고 '기억 드로잉'을 도입하였다. 첫 번째 '() 화법 드로잉'에서는 교사가 학생 앞에 있는 칠판에 미리 드로잉을 했다(그림1). 이 첫 번째 드로잉은 각, 사각형, 삼각형 등 여러 가지로 결합된 수직선, 사선, 수평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이 드로잉을 석판에 그대로 그렸으며, 매주 30분짜리 수업을 4번 갖도록 요구되었다. 상급 학생들은 종이에 직접 그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두 번째인 '모델 드로잉'은 상급 학생들에게 도입되었다(그림2). ... (중략) ... 세 번째는 '기억 드로잉'으로, 역시 초급 학년에서 가르친 기억 드로잉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이미 그려본 적이 있는 특정 물체를 기억력으로 재현했다.

<작성 방법>

- 스미스는 메사추세츠사범미술학교를 창설, '산업드로잉'과목을 창설했다. 그것이 ㉠교육에 미친 업적을 서술할 것.
- 두 괄호 속에 ㉡공통된 단어를 적을 것
- 그가 도입한 드로잉 세 단계 중 밑줄 ㉢'모델 드로잉'의 소재와 드로잉 방식을 서술할 것.

7.8월 기출문풀 4강 1번. 다음은 미국의 공립학교 미술교육에 관한 미술교육론자들의 주장을 대조한 것이다. 괄호 안에 용어 ㉠, ㉡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벤자민 프랭클린 (B.Franklin.)	1749년, 미국에 학교 교육에 미술을 도입할 것을 최초로 주장했고, 미술을 유용성과 실용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고 미술의 유용성과 물질적 가치 인식을 강조하였다.
파울 (W. B. Fowle.)	미술 지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새로운 재료와 지도 방법의 교육적 기능성을 제안했으며, 드로잉이 실용적 목적에 제한된 1820년대에 시각예술에 관심을 갖고 (㉠)을/를 도입하는 등 실험 정신을 불러 일으켰다. (㉠)는/은 영국 랭커스터와 벨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제도로, 교사가 조장을 가르치고 그 조장들이 배웠던대로 동료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도이다.
미니피 (William infie)	미술을 작품 제작으로서가 아닌 (㉡)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술을 산업적 면에 활용해 제조 상품 디자인과 생산을 돕기 위해 미술 기능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쓰기를 배울 수 있다면 누구나 그림을 배울 수 있고, 그림을 배우는 것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뿐 아니라, 생활인의 기호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 미국의 공립학교 미술교육은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미술교육의 각국별 특징을 묻는 문제로 다뤘던 문제이다. 특히 7월 기출응용문풀에서 스미스의 산업드로잉과 메사추세츠 입법 통과 및 사범학교 설립이 공헌한 내용을 다룬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프랭클린과 학자들의 시기 문제 역시 미술교육론의 흐름을 정리해준대로 기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 만과 미니피는 드로잉과 글쓰기와의 동질성을 주장하였는데, 여기서는 만의 장점만을 물었으므로 요구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 주의점이다.

7. 문풀 적중 : 5,6월 8강 예시문제 3번

답) ㉠영모화. ㉡전이모사. 좋은 그림의 모사를 통해 기법을 습득해 자신만의 창조의 단계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생

5.6월 8강 예시문 3번. 육조시대 사상이 사혁(謝統)은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그림 평가 기준으로 ‘육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기>의 내용 중 ㉠, ㉡의 괄호 속에 알맞은 용어를 각각 적으시오.

— < 보 기 > —

㉠ 기운생동 : 작품 전체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혼으로, 훌륭한 작품은 기술적 면에 우선해서 작가의 정신적 감정과 운율적 감정, 생동적 감응력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 전이모사: 좋은 그림을 모사하는 것은 옛부터 기본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법을 습득하고, 이전 화가의 경험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만큼 잘 옮겨 그렸는가를 평가하는 말로, 옛 그림 원본을 놓고 베끼는 단계를 거쳐 ()의 단계로까지 나뉘며 작가가 어느 단계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그 예술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 경영위치 : 화면 배치와 전체 구도를 말하는 것으로, 화면 속에 각 물체의 위치 선택을 잘하고 공간의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 수류부채 : 사물 종류에 따라 적절한 색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사물의 속성과 본질이 드러나는 정확한 채색이 되어야 한다.
㉤ 응물상형 : 물체 형상을 그려내는 사실적 묘사로, 사실이란 형태 중 특히 사물의 ()가/이 정확하고 정신이 일치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물의 정확성에 응해서 그려야 한다.
㉥ 골법용필 : 붓을 운용하는 데 있어 골법과 기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물의 형상을 그려내는 붓의 사용에 있어 운필에 의해 나타나는 사물의 형태와 짜임새를 개괄하여 표현해야 한다.

☞ 동양미학론 문제 중 가장 기초내용으로, 문풀때도 특히 ‘전이모사’에 대하여 의미를 강조하며 창작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강조했으므로 취지에 맞게 단순히 베끼 이상의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8. 답) ㉠정의적. ㉡교육적 감식안. ㉢평가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되고 해석된 교육적 현상들의 교육적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경험이나 교육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메시지나 반복적인 주제 등 전반적 특성을 파악

하고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9. 답) ㉠연질. ㉡경질. ㉢성리학. 순수함과 청렴결백함을 추구하는 성리학 이념이 반영되어 화려한 색이나 인위적인 장식을 피하고 백자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절제미, 흰색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10. **문풀 적중 : 9월 모고 1강 A형 1번.**

답) ㉠정체성 역량. ㉡작품을 만드는 것은 고립된 창작이 아닌 타인의 표현에서의 다양한 이미지가 기법, 제재, 속성 등을 토대로 타인의 작품에서의 텍스트들이 교차되어 만들어지는 재창조 같은 것이다. ㉢첫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이나 단일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음.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이나 정보가 명확하게 지시되지 않음.

9월 모고 1강 A형 1. 다음은 2022년 미술과 개정교육과정 중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에 대한 도식과 내용이다. 괄호 안에 용어 ㉠, ㉡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답) ㉠정체성, ㉡핵심 아이디어**

고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인간상과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연계하여 미술과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 심미적 감성, 창의·융합, 시각적 소통, 공동체와 관련된 요소들을 미술과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과목별 내용체계는 학생들이 해당 영역을 배움으로써 학교밖 일상에 전이되어 내면화할 수 있는 영역별 (㉡)을/를 제시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차원이 유기적으로 성취기준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내용 요소의 범주는 각 영역 수준 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할 구체적인 '지식·이해', 미술과 교유의 사고와 탐구를 설명하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정·기능', 해당 영역의 지식과 과정, 기능을 학습하여 미술과의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내면화하여 살아가는데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가치·태도'로 구분하였다.

올해 미술교육론에서는 윌슨이 매우 유력하다고 여러번 강조하면서 그의 포스트모던 이론들, 상호텍스트와 리즘 등을 수차례 문제로 냈었다. 그 중 중요 용어인 상호텍스트는 타인 작품들의 표현요소들을 교차하듯 활용하여 재창조하는 것임을 강조했었으므로 복습이 잘되었다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22년 개정교육과정의 역량이 예측대로 나왔는데, 올해까지는 역량이 나올 것이니 정리하라고 강조했었고, 특히 더 중요한 '정체성'과 '공동체' 역량은 다각도로 대비하여 외워둘 것을 강조했었다. 9월 모고에서 마지막 확인차 괄호를 뚫은 위 문제 역시 이번 문제에서처럼 '정체성' 역량이었다. 교육과정은 불필요한 시간 투자를 하지 말고 출제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전략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1. **교재 참조 : <서양미술사> P.395**

답) ㉠도쿠멘타. ㉡작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며 사회와는 무관한 뒤상의 반예술적이며 냉소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예술가의 사회 참여와 사회 변혁으로서의 행동주의를 강조하였다. ㉢펠트. 비행기 사고로 극한 지역에 조난 당한 작가를 원주민들이 펠트로 따뜻하게 신체를 감싸 체온을 유지하고 치료하여 회복한 것으로, 예술의 치유와 회복성을 드러낸다.

<서양미술사> P.395. 요셉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 및 펠트의 맥락과 의미.

: 뒤상의 오브제 문제는 여러 번 냈었으므로 그의 무관심성과 반예술성, 냉소적 태도를 보이스의 사회성 및 행동주의 미술과 비교하여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펠트가 상징하는 것 역시 교재 내용 그대로 체온 유지와 치유, 회복성을 의미함을 그 비행기 사고와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무난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카셀 도큐멘타는 이미 플럭서스 및 백남준과 보이스 설명때나 기출 분석때 이들의 기본 중요 전시회로 강조했었으므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용어였다.

(5)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86): "치유와 혁명으로서 예술"

- ① 20세기 가장 전위적인 현대미술작가로 퍼포먼스, 개념미술, 설치와 오브제 등 다방면적 표현함.
- ② 다양성, 사회성, 소통성 강조 - '사회적 조각', '예술작품으로서의 사회'로 제시하여 실현.
: 특정 매체에 대한 집중하며, 은유와 알레고리, 예술과 삶,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 모험 등 표현, 실제 정치 활동까지 하며 자신의 사고관을 넓힘.

③ 예술의 치유성 지향 :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방 덩어리 등의 재료에 개인적 서사를 결합하여 예술로의 치유와 회복성을 주장함.

④ 플럭서스에서 활약하며 우리 모두가 예술가이며,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주장.

⑤ <데이트 미술관에서의 강의>(퍼포먼스) :

- ㉠ 환경적 속성의 해프닝들에 장황한 정치 연설과 논쟁을 곁들이는 행위 예술.
- ㉡ 어떤 종류이든 미술품을 재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동적 활동이라는 주장 펼침, 즉, 불명동한 사회를 지지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⑥ <펠트천 (모포)양복> :

- ㉠ 1970년대 작가 몸에 맞춰 만들어 퍼포먼스 후 설치한 것.
- ㉡ 펠트(felt)는 1943년 작가가 비행기 추락으로 러시아에서 사경을 헤맬 때 타타르인이 그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준 천으로, 죽음 문턱에서 자신을 살린 매개체인, 소매와 다리가 긴 것은 집처럼 감싸는 의미 드러냄.



펠트천(모포) 양복



데이트 미술관에서의 강의 피아노줄/모자/지휘대/사진/1969 지방당한 의자

⑦ '사회적 조각' (7,000개 떡갈나무 시리즈) 프로젝트 :

㉠ '예술작품으로서의 사회'로, 실제 떡갈나무 7천개를 거리에 심은 개념적, 환경적 생태 설치작.

㉡ "나는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을 것이다. 7,000그루의 떡갈나무 옆에는 각각 한 개의 돌들이 세워질 것이며, 이로써 최소한 800년을 생존한다고 알려진 떡갈나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역사적인 순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노동과 테크놀로지의 개념, 물질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업화,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미명 아래 인간이 취해온 폭력적인 황폐화 과정에서 벗어나 올바른 재생의 과정, 다시 말해, 자연뿐 아니라 사회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소생의 과정인 '사회적 유기체'를 이끌어 낼 때다. 이를 위해 나는 돌을 필요로 한다."

